

# A Study on the Korean Club Culture

Jung-Min Bae\* · Heungsook Grace Chung

Chung-Ang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

Young persons began to do insistence about own inclination and began to get into dominate influence of fashion since World War II. Emotion of young persons arrived to make Style and Look that is differentiated with older person same age and use strong influence in Main Fashion. We can find concept about subculture that is not main culture. Study of subculture style and analyze 21st century subculture style and analyze about club culture that is situating by one culture of our society. This research study about new look of Clubber that is style that make club culture and club culture that is the recent one of subculture how subculture was expand in the 1990s.

Subculture is concept that is contrasted some social total culture, or main culture. Subculture style is dress code connected with special subculture group, is style that imply ardent wish to equate with people of other same opinion with main fashion.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one that Punks & Hippies style, Post Modern's effect, Ethnic's effect and black subculture style are important on subculture of Korea.

Club Culture is an expression of young culture a part of social club and dance club, but it Subculture to share each personal clothes, dance style, music genre. Club had progressed as appear and Music close connection to place that people meet regularly historically. Club Culture is utilized by means to do own leisure and own identity through style on society which fill with rule and symbol of control culture to clubbers that invent and enjoy club culture. That is, clubbers wish to escape from structural estrangement that

receive from society through accomplishment of self identity and enjoy club culture and give meaning in own life enjoying.

Clubber that enjoy and find club unlike group which express continuous assign feeling to particular subculture imitates clothes, all styles of music and way according to become. Club culture is done fragment what depends and looks inclination that is pad at Hip and cool. Club style is 'Supermarket of style' that the all worlds and all ages exist like products on shelf in supermarket, and rebirth of style occurs in Kitsch and form of mixture imitation do height that is equated by intentional reproduction in clubs. Clubbers make general youth culture, pop culture, subculture as well as Hippies, Modes, Punks of style. Actuality of Clubbers becomes super actuality in club, party, show etc. Style of stage becomes daily style, and standardization underground and experimental style that refuse codes of style of done same age. Style of club culture that is looked by club doesn't look standardization style exist and Clubber that enjoy and find club does clothes and all styles of music and way together according to become. That is, wish to escape from structural estrangement that have created own style and receive from society's symbolism that give meaning in life while Clubbers enjoy and enjoy club culture.

If analysis about our culture follows now in sociocultural viewpoints, we may look culture of future fashion. We must listen and examine closely about young consumers of us what want through excitement and energy.

## 우리 나라의 클럽문화에 대한 고찰

배정민\* · 정홍숙

중앙대학교\* · 중앙대학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관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패션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의 정서는 동시대 어른과 구별되는 의상 스타일과 록을 만들어 내고 주류 패션에 강력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대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위문화 스타일의 영향력과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하위문화 스타일을 분석하고 우리사회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클럽문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하위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최근의 하위문화 중의 하나인 클럽문화와 클럽문화를 이루는 스타일인 Clubber(클러버)들의 새로운 록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하위문화는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 또는 주요한 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위문화 스타일은 특별한 하위문화 집단과 관련된 드레스 코드이며 지배적 주류 패션과 다른 같은 의견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열망을 함축하는 스타일이다. 우리나라의 하위문화에서 펑크적이고 히피적인 주체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적 영향과 에스닉의 영향과 흑인 하위문화 스타일도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의 의복에 중요한 영향의 하나이다.

클럽문화는 댄스 클럽과 사교 클럽의 역할을 하는 청년문화에 붙여진 구어체적 표현이며 영역적 연계성을 공유하지만 각자의 옷차림, 댄스 스타일, 음악장르를 공유하는 하위문화이다. 클럽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로 등장해 음악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해왔다. 클럽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Clubber들에게 클럽 공간의 지배 문화의 규범과 상징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나름의 여가와 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Clubber들은 클럽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록 마술적, 상징적 수준이긴 하지만 자아정체성의 성취를 통해 사회로부터 받는 구조적 소외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특정한 하위문화에 지속적인 소속감을 표현하는 집단과 달리 클럽을 즐겨 찾는 Clubber는 의복, 음악의 모든 스타일과 방식을 되는대로 따라한다. 클럽문화는 무엇이 힙(hip)하고 쿨(cool)한가에 의존하고 패드적인 성향을 보이며 파편화되어있다.

클럽 스타일은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가 슈퍼마켓의 선반 위의 제품들처럼 존재하는 '스타일의 슈퍼마켓(Supermarket of Style)'이며, 클럽에서는 스타일의 부활은 의도적인 재생산으로 동일시되는 키치와 혼성모방의 형식으로 일어난다. Clubber들은 히피, 모드, 펑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문화, 팝문화, 하위문화를 스타일의 대상으로 삼는다. Clubber들은 클럽, 파티, 쇼 등에서 현실이 초현실이 된다. 스테이지의 스타일이 일상의 스타일이 되고, 정형화된 동시대의 스타일의 코드들을 거부하는 실험적이고 유동적인 스타일이다. 클럽록으로 보여지는 클럽문화의 스타일은 정형화된 스타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클럽을 즐겨 찾는 Clubber는 의복과 음악의 모든 스타일과 방식을 되는대로 따라한다. 즉 Clubber들은 클럽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록 마술적, 상징적 의미로 사회로부터 받는 구조적 소외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분석이 따른다면 미래의 패션이 가진 문화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젊은 소비자들이 흥분과 에너지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이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